

후속 보도자료

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
발신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담당	소성욱 kissingaids@gmail.com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HIV/AIDS인권행동 알 활동가
제목	초국적 제약회사 길리어드의 서출퀴어문화축제 부스 및 행진차량 참여에 대한 대항행동 (발송일: 6월 4일, 총 4쪽, #별첨1. HIV/AIDS인권행동 알 논평)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러브포원,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레드리본 사회적 협동조합, 장애여성공감,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HIV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가진사람들’, HIV/AIDS인권행동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는 성소수자 인권단체와 HIV감염인 자조모임 및 인권단체가 함께 구성하고 있는 HIV/AIDS인권현안 대응 연대체입니다.
3.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이하 길리어드) 등의 초국적 제약회사가 공적 지원으로 개발된 HIV치료제 등의 의약품에 대해 독점사유화하며 천문학적인 폭리를 취해온 비윤리적 행태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왔습니다. 심지어 길리어드는 최근 자신들의 시장독점을 연장하기 위해 부작용이 개선된 HIV치료제 출시를 일부러 늦춰, 미국의 2만 4천명의 HIV감염인 및 성소수자들로부터 집단으로 고소당하는 등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4. 성소수자와 HIV감염인 등 시민들의 건강권과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며 퀴어친화적 마케팅으로 핑크워싱을 자행하는 초국적 제약회사에게 성소수자의 자긍심과 HIV감염인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외쳐왔으나, 이들은 2022년부터 서울퀴어문화축제에 파트너십이라는 이름으로 부스와 행진차량을 점하기 시작했습니다.
5. 이에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5월 25일 ‘초국적 제약회사의 돈에 프라이드는 없다’는 카드뉴스를 발행하고, 6월 1일 개최된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또다시 부스와 행진차량을 점유한 초국적 제약회사 길리어드에 대해 규탄하며 대항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 6월 1일 오후 1시부터 약 한 시간 동안 서울퀴어문화축제의 길리어드 부스 앞에서 “특허권 독점으로 의약품 접근권을 침해하는 길리어드와 GSK는 성소수자와 HIV감염인의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 및 발언과 함께 항의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소속단위 외에도 녹색당, 홍진단 등의 단체들과 규탄에 동의하는 개인참여자들 등이 집단적으로 동참했습니다.
 - 이후 오후 4시 넘어 시작된 퍼레이드에서는 더나은의약품생산체제를위한시민사회연대, 그리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과 함께 초국적 제약회사의 비윤리적 행태를 고발하는 현수막 펼쳐 퍼레이드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이 행렬 역시 장애여성공감 등 초국적 제약회사 길리어드 규탄에 동의하는 단체들과 개인 참여자들이 동참했습니다. ‘길리어드 환영하지 않아’라며 정치하는엄마들의 연대도 있었습니다.
6. 앞서 5월 26일에는 HIV/AIDS인권행동 알이 입장문 발표를 통해 초국적 제약회사가 건네는 돈에 프라이드(자긍심)가 있을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7. 이 문제에 대한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초국적 제약회사의 자본을 거부하는 힘에 프라이드와 미래가 있다

- “‘세금도둑’이 말해보겠습니다”

성소수자들의 저항과 투쟁의 역사인 스톤월 항쟁이 유래가 되는 자긍심의 달(프라이드 먼스; Pride Month)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자긍심인가 질문하며, 다시금 초국적 제약회사들의 퀴어친화적 행보와 ‘기부’를 경계한다.

우리는 2022년, ‘초국적 제약회사의 후원을 퀴어커뮤니티가 경계해야 하는 이유’라는 이름의 공동입장 발표로 초국적 제약회사가 건네는 돈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2023년에는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이하 길리어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으로 핑크워싱에 대한 항의행동을 가졌다. 그리고 재작년과 작년 모두 서울퀴어문화축제의 퍼레이드에서 초국적 제약회사의 핑크워싱 문제를 알리는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는 현수막 행동을 진행했다. 우리는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의 구성단체로서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와 면담을 가지고, 그 외에도 초국적 제약회사가 건네는 돈을 수령하는 일부 단체에 문제제기하는 과정을 별도로 가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초국적 제약회사들은 지속적으로 퀴어/HIV감염인 커뮤니티에 돈이나 물품을 건네왔다. 어떤 때는 제약회사의 이름을 일부러 공개하지 않는 형태였고, 어떤 때에는 보도자료를 내 기사까지 만들면서 홍보하는 형태였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성소수자 인권운동과 에이즈 인권운동이 끊임없이 공부와 행동으로 초국적 제약자본에 대해 경계를 멈추지 않아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작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초국적 제약회사가 서울퀴어문화축제 파트너십으로 참여하는 단위로서 부스와 행진 차량을 운영한다는 소식이 약 일주일 전에 확인됐다.

HIV/AIDS인권행동 알이 HIV/AIDS 감염인 단체로서 참여한 최초의 퀴어문화축제는 약 10년 전 신촌에서 개최된 서울퀴어문화축제다. 에이즈를 주제로, 당사자성을 가지고 부스를 운영하는 것에 두려움도 있었기에 뜨거운 논쟁이 필요했지만 결국 그때부터 서울 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퀴어문화축제에도 당당하게 참여하게 되었다. 에이즈 낙인과 성소수자 혐오가 아주 긴밀이 연결되어 있는 우리 사회에서, 50여년 전 시작된 저항의 역사로 만들어진 ‘프라이드’라는 이름으로 HIV/AIDS 인권을 말하고 싶었고, 성소수자이자 HIV감염인인 다양한 당사자들의 가로지르는 교차성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수많은 HIV감염인 회원, 당사자들이 우리의 부스를 통해 안도감과 자긍심을 느꼈고, 수많은 성소수자들과 지지자들이 HIV/AIDS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퀴어문화축제는 우리에게 저항의 역사를 기억하고 실천하는 투쟁의 현장이자, 서로를 만나며 우리가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축제의 현장이었다. 그런데 그 안도감과 자긍심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길리어드와 GSK를 비롯한 초국적 제약회사는 HIV감염인, 성소수자가 혐오세력에게 공격받는 소위 '세금도둑'의 진짜 범인이다. 사실 세금적 성격인 건강보험재정은 공공의료에 쓰여야 하는데, 초국적 제약회사가 높은 약가를 통해 폭리를 취해 특허의약품 지출부담을 가중시켜왔기 때문이다. 초국적 제약회사의 특허 독점과 탐욕적인 이윤 추구로 인한 HIV/AIDS 치료제와 예방의 높은 약가는 HIV감염인과 성소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세금도둑'이라는 꼬리표가 붙도록 만든다. HIV감염인이 흠쳐간 것이 그 무엇도 없는 데도. 보수개신교 성소수자 혐오차별선동세력의 '세금도둑' 프레임이 현장 밖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면서도, 진짜 범인이 축제에서 당당히 부스를 운영하고 행진 차량까지 이끄는 모양이 되어버린 것이다.

수백, 수십 조에 달하는 초국적 제약회사의 이윤추구가 우리 사회의 의료공공성, 인간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핵심적 걸림돌인 상황에서 우리의 자긍심은 어디에 있고, 어디에서 발화되어야 할까. 우리의 프라이드는 HIV 치료제 등 의약품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건강권을 말하는 곳에 있어야 한다. 인간이 건강할 권리를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자본에 저항하고 싸우는 곳에, 우리의 프라이드가 있어야 한다. 불평등과 건강권 위협에 맞서는 투쟁의 현장에, 우리의 프라이드가 있다.

때문에 올해도 HIV/AIDS인권행동 알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의 카드뉴스 발표에 동참한다. 서울퀴어퍼레이드를 이끄는 차량에 초국적 제약회사가 있지만, HIV감염인과 성소수자의 건강권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들고 행진에 참여한다. 초국적 제약회사의 핑크워싱을 규탄하는 힘이 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 행동하겠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초국적 제약회사의 자본을 거부하는 힘에 프라이드와 미래가 있다고 믿는다.

2024.05.26

HIV/AIDS인권행동 알